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79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3. 30. (제 6 차)

의
결
사
항

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3. 30.

1. 의결주문

☐ 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☐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회계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(제23기)

나. 수지현황

☐ 2021년 총수입은 4,049억원, 총지출은 3,554억원으로 당기 수지차익(분담금 반환 전 기준)은 495억원 발생

○ 당기 수지차익(495억원)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수납비율에 따라 납부기관별로 반환 예정

○ 반환 예정금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336.6억원(68%),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은 158.6억원(32%)

다. 재무현황

☐ 2021년말 기준 자산은 2,899억원으로 전년말(3,025억) 대비 126억원 감소

○ 수지차익의 감소(△129억, 624억→495억) 및 퇴직급여 최소적립금액 증가(50억원)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- 2021년말 기준 부채는 549억원으로 전년말(546억) 대비 3억원 증가
 - 자본예산 집행 증가에 따른 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(+47억원), 직무급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충당 부채 감소(△2억원) 등
- 2021년말 기준 자본은 2,350억원으로 전년말(2,479억) 대비 129억원 감소
 - 전액 수지차익 감소(전년 대비 △129억)에 기인하며, 수지차익 반환 예정액을 반영한 자본은 1,85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

라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 현황

- 총수입(4,049억원) : 예산액(3,659억원) 대비 +10.7% 초과 수입(+390억원)
 - 회사채·주식 발행 증가('20년 183.6조원 ⇒ '21년 202.4조원(+18.8조원, +11.1%))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(예산比 +379억원) 등에 기인
- 총지출(3,554억원) : 예산액(3,659억원) 대비 97.1% 집행(△105억원)
 - 정·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불용(△80억), 성과등급(B)에 따른 평가상여금 조정(△13억*),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(△14억) 불용 등에 기인
 - * 예산편성시에는 평가등급 확정 전이므로 A등급까지 지급 가능한 금액 편성(154억)
→ 실제 평가등급(B)에 따른 지급액은 약 141억

4. 참고사항

- 가. 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주요내용 : < 붙임 1 >
- 나. 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결과 : < 붙임 2 >
- 다.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규 : < 붙임 3 >
- 라. 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: < 별첨 >

(별지)

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승인

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별첨 「2021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」를 승인한다. 다만,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지적사항(붙임 2)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023년도 예산심의 시 금융위원회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.

1. 결산 개요

□ (회계기간) 2021. 1. 1. ~ 2021. 12. 31.(제23기)

□ (수지현황) 총수입은 4,049억원, 총지출은 3,554억원, 당기 수지차익은 495억원(분담금 반환 반영 전 기준)

- 수지차익이 495억원 발생한 것은 당초 예상 대비 발행분담금 납부액이 증가*하면서 총수입이 390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

* '21년도 발행분담금 추정액 872억원, 발행분담금 징수액 1,251억원

- 수지차익은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반환될 예정(감독분담금 336억원, 발행분담금 158억원)

* 근거 :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

□ (재무상태) '20년말 기준 총자산은 2,899억원, 부채와 자본은 각각 549억원 및 2,350억원

<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(요약)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금 액	구 분	금 액
I. 총 수 입	4,049	II. 총 지 출	3,554
운영수입	4,010	일반관리비	3,353
운영외수입	39	운영외비용 등	201
		III. 수지차익	495
합 계	4,049	합 계	4,049
IV. 자 산	2,899	V. 부 채	549
유동자산	1,409	유동부채	142
비유동자산	1,490	비유동부채	407
		VI. 자 본	2,350
		기본재산	1,855
		수지차익	495
합 계	2,899	합 계	2,899

2. 수지 현황

□ (수입) '21년 중 총수입은 4,049억원으로 전기(3,998억원) 대비 51억원 증가(+1.3%)

○ 회사채·주식 발행 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* 등에 기인

* (회사채 발행액) '20년 183.6조원 ⇒ '21년 202.4조원(+18.8조원, +11.1%)
(발행분담금 수입액) 1,251억원 ⇒ 예산比 +379억원, 전년比 +193억원

□ (지출) '21년 중 총지출은 3,554억원으로 전기(3,374억원) 대비 180억원 증가(+5.3%)

○ 정·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불용(△80억), 성과등급(B)에 따른 평가상여금 조정(△13억*),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(△14억) 불용 등

* 예산은 A 달성 기준으로 편성(154억) → 실제 평가등급은 B(141억 지급)

□ (수지차익) '21년 중 수지차익은 495억원으로 전년(624억원) 대비 129억원 감소(△20.7%)

* 수지차익 추이(억원) : '18년 512 → '19년 496 → '20년 624 → '21년 495

< 부문별 수입·지출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1년 (A)	2020년 (B)	증 감(A-B)		비고(전년대비 증감 사유)
			금 액	증감률	
I. 총 수입	4,049	3,998	51	1.3	
운 영 수 입	4,010	3,951	59	1.5	
감독분담금	2,654	2,788	△134	△4.8	감독분담금 예산 감소 회사채 등 발행 증가
발행분담금	1,251	1,058	193	18.2	
한은출연금	100	100	-	-	
기타수입수수료	5	5	-	-	
운영외수입	39	47	△8	△17.0	비유동자산준비금환입액(△8억원)
II. 총 지 출	3,554	3,374	180	5.3	
일반관리비	3,353	3,238	115	3.6	
인 건 비	2,293	2,235	58	2.6	직무급 지급 증가 등
퇴직급여	296	256	40	15.6	직무급 관련 퇴직급여 증가 등
경 비	764	747	17	2.3	국내여비(+4억원), 광고홍보비(△3억원)
운영외비용 등	201	136	65	47.8	비유동자산준비금 전입액 (+29억원), 통상임금충당부채 설정비용 (+26억원)
III. 수지차익	495	624	△129	△20.7	

3. 재무상황

□ (자산) '21년말 기준 2,899억원으로 전년말(3,025억) 대비 126억원 감소

- 전년도 대비 수지차익의 감소($\Delta 129$ 억, 624억 \rightarrow 495억) 및 퇴직급여 최소적립금액 증가(50억원)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□ (부채) '21년말 기준 549억원으로 전년말(546억) 대비 3억원 증가

- 자본예산 집행 증가에 따른 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(+47억원), 직무급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충당 부채 감소($\Delta 2$ 억원) 등

□ (자본) '21년말 기준 2,350억원으로 전년말(2,479억) 대비 129억원 감소

- 전액 수지차익 감소(전년 대비 $\Delta 129$ 억)에 기인하며, 수지차익 반환 예정액을 반영한 자본은 1,85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

< 부문별 재무상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1년 (A)	2020년 (B)	증 감(A-B)		비 고
			금 액	증감률	
I. 자산총계	2,899	3,025	$\Delta 126$	$\Delta 4.2$	
유 동 자 산	1,409	1,575	$\Delta 166$	$\Delta 10.5$	
예 금	1,404	1,570	$\Delta 166$	$\Delta 10.6$	수지차익 감소 등에 따른 예금 감소
미 수 금	2	2	-	-	
기 타	3	3	-	-	
비유동자산	1,490	1,450	40	2.8	
투자자산	285	253	32	12.6	퇴직연금운용자산(+50억원), 임차보증금($\Delta 18$ 억원) 등 건물·구축물 감가상각 등 개발비 등 자본예산 집행 증가
유형자산	1,092	1,120	$\Delta 28$	$\Delta 2.5$	
무형자산	113	77	36	46.8	
II. 부채총계	549	546	3	0.5	
유 동 부 채	142	209	$\Delta 67$	$\Delta 32.1$	
미지급금	13	4	9	225.0	자본예산 이월분 증가
예 수 금	96	92	4	4.3	
기 타	33	113	$\Delta 80$	$\Delta 70.8$	선수수익($\Delta 93$ 억원), 미지급비용(+13억원) 등
비유동부채	407	337	70	20.8	
퇴직급여충당부채	-	-	-	-	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통상임금충당부채 추가 전입 직무급 소송 등 판결 확정
비유동자산준비금	254	207	47	22.7	
통상임금충당부채	153	127	26	20.5	
소송충당부채	-	2	$\Delta 2$	$\Delta 100$	
기 타	-	-	-	-	
III. 자본총계	2,350	2,479	$\Delta 129$	$\Delta 5.2$	
기 본 재 산	1,855	1,855	-	-	통합 시 인수재산 및 한국은행출연금
수 지 차 익	495	624	$\Delta 129$	$\Delta 20.7$	

4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현황

□ (수입) 4,049억원, 예산(3,659억) 대비 390억원 초과(110.7%)

○ 회사채·주식 발행 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* 등에 기인

* (회사채 발행액) '20년 183.6조원 ⇒ '21년 202.4조원(+18.8조원, +11.1%)
(발행분담금 수입액) 1,251억원 ⇒ 예산比 +379억원, 전년比 +193억원

< 예산수입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1년 예산		2021년 수입		차 이 (B-A)	수입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20년
감독분담금	2,654	72.5	2,654	65.5	-	100.0	100.0
발행분담금	872	23.9	1,251	30.9	379	143.5	150.2
한은출연금	100	2.7	100	2.5	-	100.0	100.0
운영외수입 등	33	0.9	44	1.1	11	133.3	141.8
합 계	3,659	100.0	4,049	100.0	390	110.7	110.2

□ (집행) 3,554억원, 예산(3,659억) 대비 △105억원 불용(97.1% 집행)

○ 정·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불용(△80억), 성과등급(B)에 따른
평가상여금 조정(△13억*),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비(△14억) 불용 등

* 예산은 A 달성 기준으로 편성(154억) → 실제 평가등급은 B(141억 지급)

< 예산집행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1년 예산		2021년 집행		차 이 (B-A)	집행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20년
일반관리비	3,413	93.3	3,353	94.3	△60	98.2	95.3
총인건비	2,373	64.8	2,293	64.5	△80	96.6	96.3
경 비	793	21.7	764	21.5	△29	96.3	93.4
퇴직급여	247	6.8	296	8.3	49	119.8	93.2
자 본 예 산	116	3.2	111	3.1	△5	95.7	89.8
운영외비용 등 ²⁾	130	3.6	90	2.5	△40	69.2	38.0
합 계	3,659	100.0	3,554	100.0	△105	97.1	93.0

5. 기타 사항

□ 예산 초과계리: 92.4억원

- 퇴직급여(+49.5억원), 세금과공과(+35.9억원), 기타 운영외비용(+0.3억원) 등의 비목에서 총 92.4억원 초과 집행*

* 금감원장은 퇴직급여, 세금과공과, 등기소송비, 보험료, 운영외비용, 법인세비용 비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(예산총칙 제8조)

< 초과계리 관련 비목 예산 >

(단위: 억원)

과 목	'21년 예산 (A)	'21년 집행 (B)	차 이 (B-A)	비 고
퇴직급여	246.8	296.3	49.5	직무급 인상 등에 따른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증가
세금과공과	218.8	254.7	35.9	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집행액 증가
운영외비용	14.1	21.1	7.0	
공인회계사 시험관리비	14.1	20.8	6.7	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시험장 관리비용 증가
기타운영외비용	-	0.3	0.3	해외사무소 전도금 관련 환차손 등
합 계	479.8	572.2	92.4	

□ 예비비 : 238억원 중 193억원 사용

- 평가상여금(142억원), 인력 증원 관련 인건비(24억원) 및 통상 임금충당부채 전입(26억원) 등에 사용

< 예비비 사용 내역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사용 전 예산액(A)	사용액(B)	사용 후 예산액(A-B)
예비비	238	193	45
목적예비비	231	193	38
일반예비비	7	-	7

< 예비비 배정 관련 비목 예산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배정 전 예산액(A)	예비비 배정액(B)	배정 후 예산액(A+B)
총인건비	2,205	167	2,372
인건비	2,138	166	2,303
복리비	67	1	69
퇴직급여	247	0.3	247
퇴직급여	247	0.3	247
운영외비용	-	26	26
통상임금충당부채전입액	-	26	26
합 계	2,452	193	2,645

1. 심의 경과

-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'22.3월 중 「금융감독원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」 개최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§18, 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」 §14 등에 따라 설치·운영 중

2.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

① 수입 및 지출 결산 일반 사항

- 글로벌 경제·금융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발행분담금 관리방안 마련 필요

◆ (부대의견)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발행분담금 징수 실적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'23년 예산소위에 보고할 것

② 검사

- 금융위의 예산심의·평가 내실화를 위해 금감원 ①예산신청시 사업 계획, ②검사운영계획, ③실제 검사실적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

◆ (부대의견) 검사예산 집행 내실화 차원에서 연간 검사 추진 방향 및 검사 운영 성과(각 업권별 검사대상 금융회사 수, 연평균 수검 금융회사 수 등) 등을 점검하여 '23년 예산소위에 보고 할 것

③ 금융교육

- 금감원은 금소법령에서 금융교육 정책 업무를 위탁받은 만큼 금소법상 협의체인 금융교육협의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 할 필요

◆ (부대의견) 효율적인 금융교육 예산의 집행 등을 위해 금융교육 협의회 내 교육기관 간 협업 등 내실 있는 금융교육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'22년 결산소위에 보고 할 것

④ 교육훈련

- 금감원 파견자는 해당국 정책자료 및 통계 조사, 면담 등에 유용한 창구로 활용 가능성에도 체계적인 활용방안은 부족

◆ (부대의견) 現 국외 파견 기관에 대한 파견 성과를 점검하고, 파견자 관리·감독 방안, 국가·기관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'22년 결산소위에 보고할 것

⑤ 국제회의 · 협력, 해외사무소

- 법령상 금융협력 업무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이며, 외교업무는 정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바, 금융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
- 금감원은 '19년중 홍콩사무소를 폐쇄했으나, 감사원은 워싱턴 등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추가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

◆ (부대의견) 금감원 국제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(주요 국제회의 참석 시 사전협의 및 역할 분담 방안 등 포함), 해외사무소 성과 평가 및 이에 따른 존치 여부 검토 방안 등을 마련하여 '23년 예산소위에 보고할 것

⑥ 정보화 사업

- 일반 국민·외국인이 금감원이 보유한 업무공시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

◆ (부대의견)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여 '22년 결산소위에 보고하고, 외국인들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개선방안도 별도로 마련하여 '23년 예산소위에 보고할 것

붙임 3 |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령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제18조(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·감독)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·운영·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2.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

제45조(예산과 결산) ③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분담금)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.

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	×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분담금 </div> <hr/>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합계
--	---	---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8조(분담금의 분담요율·한도 등)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혁신기획재정담당관
연 락 처	02-2100-2782